

EU, 잘못 집행한 공동농업정책 자금 회수

2005년 4월 29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오용한 공동농업정책(CAP) 자금 2억 7,725만 Euro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금들의 회수 사유는 부적절한 통제 과정이나 농업 비용 집행과 관련된 교차 준수(cross-compliance) 불이행이다. 회원국들은 CAP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EU 농업 집행위원인 Mariann Fischer Boel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우리는 납세자들의 돈을 적절히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집행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관해 타협할 의사가 없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경 대응할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원국들이 잘못 집행한 자금을 회수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감시 제도는 CAP 자금을 집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회원국의 자금 지급과정의 합법성이 부족하거나 통제·확인 과정의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액수만큼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주요 회수 내역

이번 결정에 따라 벨기에, 독일,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에서 자금을 회수하게 되었다. 금액 규모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스페인 : 1억 1,340만 Euro

마케팅연도(marketing year) 1998/1999년 및 1999/2000년 아마(flax) 부문 관련 지급액의 관리 부족과 전반적인 비리로 지급 금액 전액 회수.

(2) 스페인 : 2,108만 Euro

마케팅연도 1996/1997년 및 1997/1998년 아마 부문 마케팅 관련 지급액의 관리 부족으로 지급액의 25% 회수, 마케팅연도 1996/1997년 및 1997/1998년 삼 부문에서의 관리 미비로 지급액의 10% 회수, 같은 이유로 마케팅연도 1998/1999년 및 1999/2000년 지급액의 25% 회수.

(3) 이탈리아 : 6,871만 Euro

마케팅연도 1998/1999년 및 1999/2000년 올리브유 생산 허용량 초과 및 마케팅연도 1999/2000년 올리브유 부문 규정 위반으로 자금 회수.

(4) 그리스 : 2,536만 Euro

경종작물 부문에서의 보증 의무 이행 불충실로 자금 회수.

2. 배경

2.1. 자금 지원과 회수에 관한 회원국들의 책임

회원국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든 자금 지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의 보증 부문에 의거하여 과도한 지급분에 대한 징수와 회수를 이행한다.

회계 절차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는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각 회원국이 배당 받은 자금을 합법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매년 200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2. 항공·위성사진 판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협력하여 자금 지급 기관을 감독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준에 따라 감사를 함으로써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모든 회원국들이 항공·위성사진 판독과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한 통합적인 통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2.3. 자금 회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자금 관리 절차가 미비하거나 유럽연합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집행위원회는 잘못 운용한 자금에 상당하는 액수를 회수한다. 더불어 회원국이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이 불충하다고 판단하면, 집행위원회는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4. 1995년 오용 자금 회수 시스템 개혁

1995년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관리·회수 시스템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현행 시스템은 두 가지 분리된 절차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절차는 전적으로 재무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집행위원회의 감독과 지급 기관이 유럽연합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절차는 매년 4월 30일 이전에 종료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정은 유럽연합의 감사에 관한 것으로 감사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발생한 자금 오용이 있으면 이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외적인 이유나 시스템 상의 문제로 자금 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수한다. 경제연합에 미친 손실을 정확하게 계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문제가 되는 금액의 2%, 5%, 10%, 25%를 회수하고, 필요하면 그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모니터링과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표 1 회원국별 자금 회수 현황

단위 : 백만 Euro

국가	부문	사유	금액
벨기에	재정 감독	Regulation 1663/95 기준 위반	0.35
독일	수출 상환	-가축 수출 과정에서 기차 수송비용 미지급 - Directive 91/1625/EEC 및 Regulation 615/98 위반	13.82
	공공 비축	- 10톤 이하의 위탁 판매 상품에 대한 관리 부족	3.86
덴마크	재정 감독	- 자금 지급 기한 위반	0.0007
그리스	가축 프리미엄	- 인증·등록 시스템 부재	0.03
	경종작물	- 보증 불충분	25.36
	올리브유	- 인가 및 품질 관련 제제 이행 연기	0.20
	재정 감독	- 자금 지급 기한 위반	0.88
스페인	과일·채소	- 주요 사항 감독 부족 및 바나나 부문에 대한 보상 미비	0.35
	아마 및 삼	- 통제 시스템 미비	21.08
	아마	- 통제 시스템 미비 및 전반적 비리	113.40
	농촌개발	- 관리 및 통제 적용 과정 문제	0.08
프랑스	수출 상환	- Regulation 615/98 4조 위반	1.65
	가축 프리미엄	- 데이터베이스 운영 미비 및 통제 미비	0.29
	과일·채소	- 바나나 부문에 대한 보상 부족	14.22
	재정 감독	- 2001년 재정 지급 기관에 대한 지원 미비	2.29
이탈리아	올리브 오일	- 마케팅연도 1998/1999년 및 1999/2000년 최대 생산 허용량 초과	68.71
네덜란드	과일·채소	- 이자율 2%를 초과한 비용 회수	0.07
포르투갈	과일·채소	- 운영 프로그램, 지급 마감 기한 위반	0.08
영국	우유	- 1994년 계정 오식(corrigendum)	-0.10
	농촌 개발	- 환율 적용 착오	0.21
	가축 프리미엄	- 인증·등록 시스템 미비 및 최저 감독 수준 불이행	9.68
	가축 프리미엄	- 초기 통제 미비	0.80
	가축 프리미엄	- 기존 상환 비용 변제	-0.06
총계			277.25

2.5. 회원국의 대응 권리 및 중재 위원회

회원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응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첫 단계는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간의 정보 교환으로, 이 이후에 토론과 비공식적인 양자 회담이 이루어진다.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외부 전문가들을 패널로 하여 회원국의 의견을 듣는다. 마지막으로 회원국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료: 유럽연합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

KREI